DAILY
MARKET
VIEW

주식시장 투자전략

Derivatives Analyst 정인지
02-3770-3528 / inji.jung@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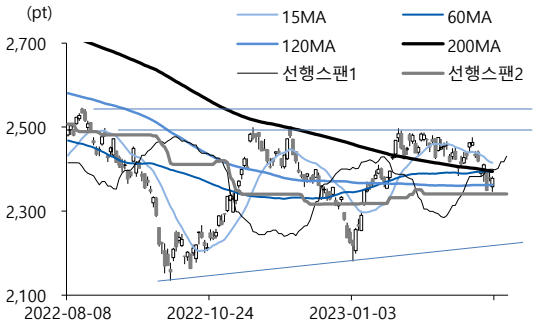
2023.3.17

매수세가 약하지 않은 시장

1. KOSPI, 단기 하락세 진정 가능성

- KOSPI, 2월 중 2,500pt 수준 저항 돌파 실패 후 완만한 하락. 3월 7일 이후 급락하면서 200일 이평선과 2,400pt 이탈.
- 일봉상 계단식 하락 구조 진행 중이라 2,410pt 회복해야 바닥 확인. 그러나 2,400pt 아래에서 지속적 매수세 유입되어 장 중 낙폭 축소.
- 원달러 환율, 전일 상승 불구 120, 200일 이평선 저항 도달. RSI 기준 매도 신호 발생.

KOSPI일봉, 조정 과정에서 구름대 하단선에서 지지 시도 중. RSI 상승 추세선 근접한 가운데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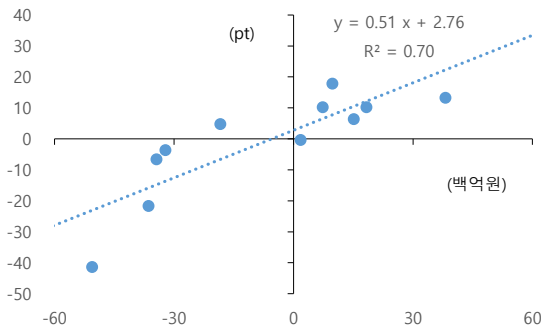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긍정적 영향 증가

- KOSPI, 장 중 움직임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크게 받음. 2월 중 2,450pt 위에서는 비차익 순매수 대비 주가 상승폭 제한적.
- 3월 중에는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대비 주가 상승 폭 2월보다 크게 나타남.
- 비차익 순매수 대비 장 중 상승 폭 회귀식의 y절편 역시 3월에 2월 대비 증가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긍정적 영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됨.

올해 3월 장 중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와 KOSPI 장 중 상승 폭의 점도표와 회귀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단기 하락세 진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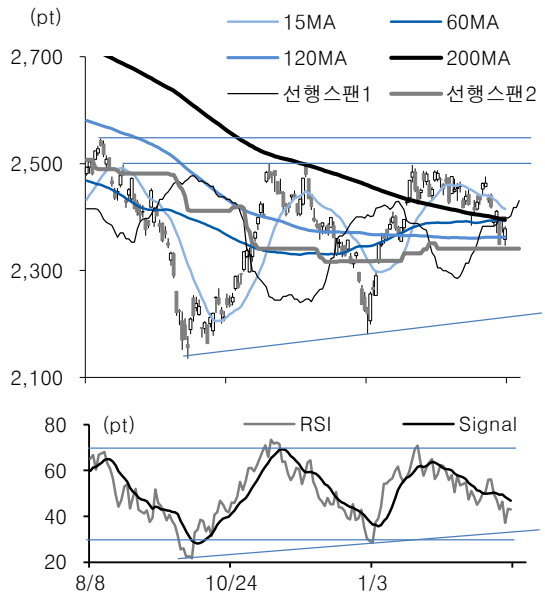
KOSPI는 이미 2월 중에 2,500pt 저항 돌파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완만한 하락세를 형성하던 가운데 3월 7일 이후 급락세로 진행되면서 200일 이평선과 2,400pt를 이탈한 모양이다.

일봉상 계단식 하락 구조가 진행 중이라 이 구조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단기 하락세 지속으로 봐야하고 지금으로서는 2,410pt 수준을 회복해야 단기 하락세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400pt 아래에서는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선에서 지지 시도 중이고, RSI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선 부근에 도달해 단기 하락 중단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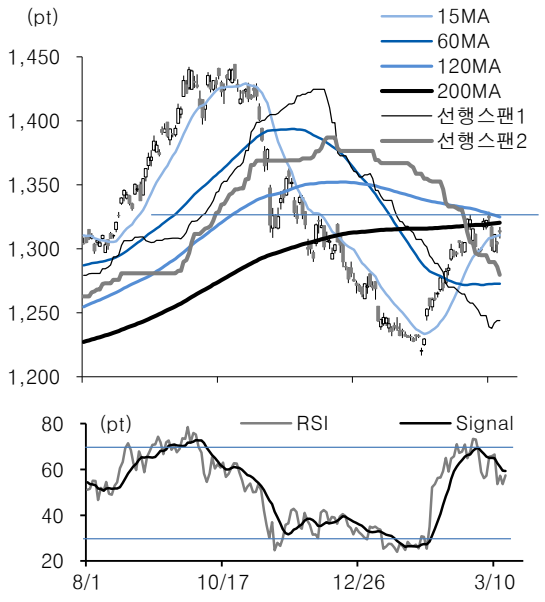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전일 9.3원 올랐지만 3월 들어 120, 200일 이평선 수준의 저항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RSI 지표로는 매도 신호가 발생한 상황으로 단기 고점대 형성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지만 하락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트1] KOSPI일봉, 조정 과정에서 구름대 하단선에서 지지 시도 중. RSI 상승 추세선 근접한 가운데 반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원달러 환율, 작년 12월 고점과 120일 이평선 등의 저항으로 상승 탄력 둔화 RSI 매도 신호 발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긍정적 영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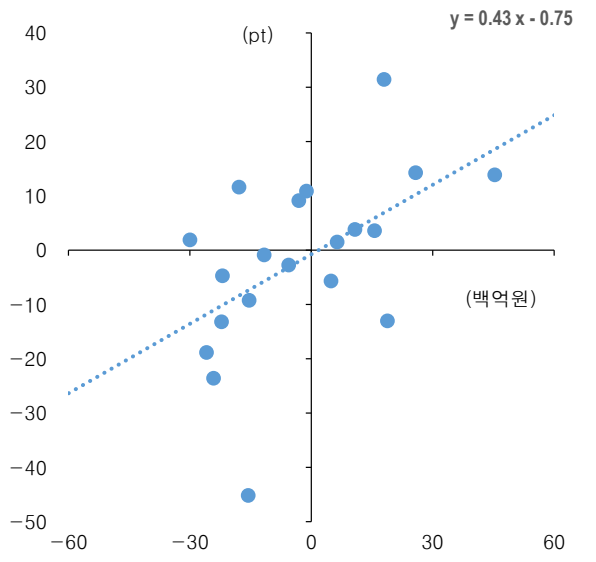
KOSPI의 장중 움직임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차트3]은 2월 장 중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대비 KOSPI 시가 대비 종가 상승 폭을 나타낸 것이고, [차트4]는 3월 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월에는 2,450pt 위에서 상승 시도를 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대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평균 백억원 순매수 대비 상승폭은 0.43pt였고, y절편은 -0.75pt로 나타났다.

반면 3월을 나타내는 [차트4]에서 기울기는 0.51 y절편은 2.76pt로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에 대해 상승 쪽으로 2월보다 유리하게 시장 흐름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450pt 위는 저항권이고, 2,400pt 아래는 지지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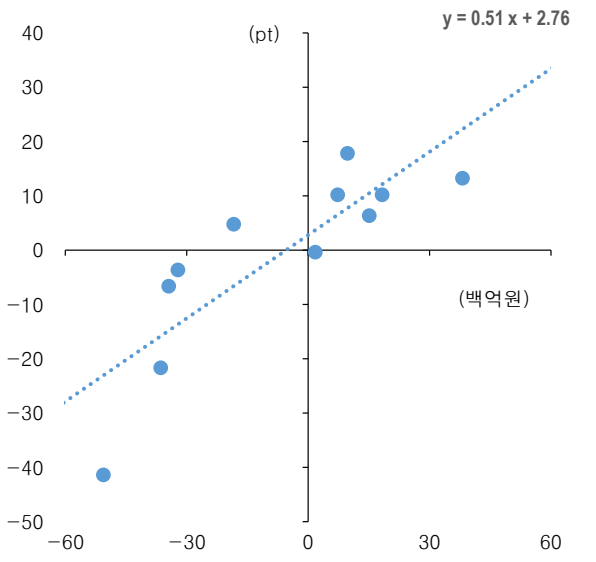
주가는 결국 시장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최근 KOSPI의 전반적인 흐름은 2,400pt 아래에서 저가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추가적인 악재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반등에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차트3] 올해 2월 장 중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와 KOSPI 장 중 상승 폭의 점도표와 회귀선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올해 3월 장 중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와 KOSPI 장 중 상승 폭의 점도표와 회귀선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아직은 희망이 있는 글로벌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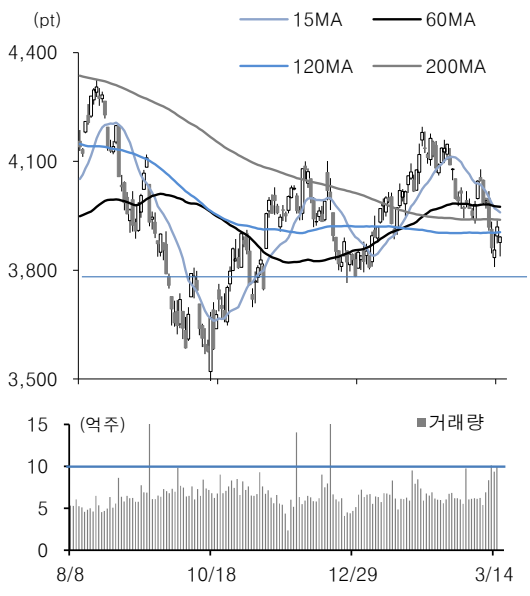
S&P500지수 역시 3월 7일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고, SVB은행 파산과 더불어 낙폭을 키웠다. 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200일 이평선을 하회한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3일간 장 중 낙폭을 회복하면서 양봉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평소 5~6억주 대에서 10억주까지 증가했다. S&P500선물 만기일과 MSCI리벨런싱 등 수급 이슈가 있는 날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주가 하락 추세 진행 중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중요한 바닥 신호이고 주가 수준 자체도 12월 저점대에 근접해 지지대에 도달한 모양이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S&P500지수도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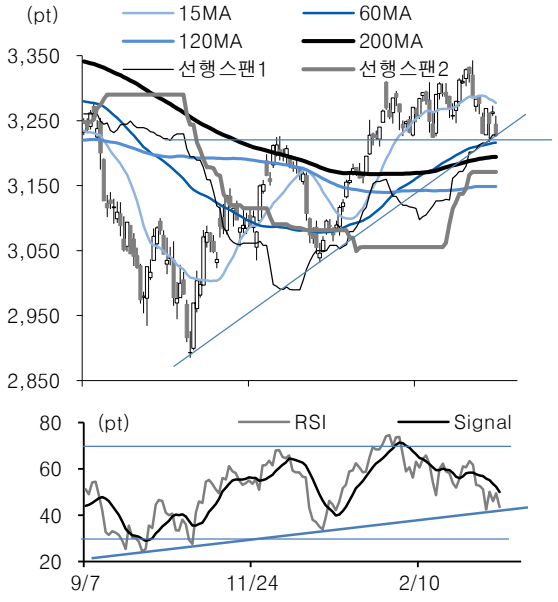
단기 조정이 진행 중인 상해종합지수 역시 전일 하락으로 상승 추세선과 박스권 하단선, 일목균형표 구름대와 60일 이평선 등 중요한 지지대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증시 역시 조정 중이지만 아직은 낙폭 확대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트5] S&P500 지수 일봉, 최근 장 중 등락폭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 급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상해종합지수 일봉, 조정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선, 상승 추세선, 일목균형표 구름대 등의 저항 도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